

# 전남 쌀, 글로벌 시장 질주…수출 5년 새 3배 뛰었다

## 유럽·중아시아 수요 급증 31개국 진출 전국 수출 81% 점유…영국 첫 선적 결실

전남 쌀이 5년 만에 수출량을 3배 늘리며 한국 쌀 수출 시장을 사실상 견인하고 있다. 전 세계 31개국으로 판로를 넓힌 전남 쌀은 올해 전국 수출의 81%를 차지하며 'K-라이스'의 핵심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유럽·중아시아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영국 첫 선적까지 더해지며 글로벌 시장 확장세에 한층 속도가 붙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쌀은 해외 원조를 포함해 2021년과 2022년 5만 1000t이었던 것이 올해 10월 말 14만 9000t까지 증가했다. 수출액도 2024년 4631만달러(신선농산물 수출액 8365만달러의 55.3%)에서 올 들어 10월 현재까지 5476만달러로 늘어 신선 농산물 수출액(8121만달러)의 67.4%를 차지하며 비

중이 커졌다.

2024년 전남 쌀 수출량은 전국 13만 7000t 중 81.1%로 1위를 기록했다. 현재 31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으며 유럽과 중아시아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긴급 쌀 수출 마케팅 추진과 판촉 지원 확대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쌀값 폭락 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 미국 종합처리장(RPC) 등을 대상으로 포장재와 파레트 등 기자재를 지원하고, 해외 전남 상설판매장을 통한 현지 홍보를 집중 추진했다.

시군·농협과도 협력해 몽골,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영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해 소비층 확대에도 성공했다.

특히 2024년은 유럽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 해다.

오스트리아는 전남도와 유럽 1위 아시아 식품 유통업체인 판아시아가 3000만달러 규모의 수출 확대 협약을 한 이후 2024년 215.6t을 수출했다.

프랑스는 148t, 네덜란드는 143.7t, 카자흐스탄은 80.7t, 영국은 39.9t, 아랍에미리트 34t으로 신규 수출이 빠르게 확대됐

다. 헝가리와 체코도 수출이 처음 이뤄지며 시장 저변이 넓어졌다.

기존 수출국도 성장세가 뚜렷하다. 한류 확산으로 한국산 쌀을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하는 국가가 늘면서 몽골은 14.4t에서 519.5t으로 크게 증가했고 베트남, 뉴질랜드, 러시아, 호주 등에서도 수출량이 고르게 늘었다.

최근 담양군농협 통합RPC에서 '운수대통 쌀 20t, 영국 첫 수출 선적식'이 열리며 전남 쌀의 유럽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한국식 식품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유망 시장이다.

전남도는 쌀 수출 확대를 위해 △전남쌀 수출 안전성 제고사업 1억5000만원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37억5000만원 △수출 기자재·컨테이너 내륙 운송료 지원 등 30억원 규모의 경쟁력 강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신원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유럽은 품질 기준이 매우 엄격하지만 전남 쌀은 맛과 품질, 안전성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며 "더 다양한 국가로 수출을 넓혀 'K-Rice가 곧 전남쌀'이라는 인식을 세계 시장에서 확고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177호점 선정

맨투맨지역아동센터 개보수  
“미래세대 위한 사회공헌”

광주은행은 최근 서구 맨투맨지역아동센터에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177호점 선정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사에는 임양진 광주은행 경영지원본부장과 변정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이 참석해 지역 아동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뜻을 함께 했다.

광주은행은 지역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맨투맨지역아동센터에 총 2000만원을 지원했다. 센터는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이 이용하고,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돌봄시설로 이용률이 높아 시설 개선 요구가 컸다.

이번 개보수는 안전·위생·학습 환경을 전반적으로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내부 공간의 방음 벽치와 장판을 전면 교체해 화재 위험을 줄였고, 파손 위험이 있던 목문도 새로 설치했다. 또한 위생 개선을 위해 세면대를 새로 설치하고 화장실을 보수했고, 학습용 기자재를 새로 구비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사업을 하며 지역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광주·전남 46개 지역아동센터의 개보수를 위해



광주은행은 최근 서구 맨투맨지역아동센터에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177호점 선정식을 진행했다.

총 4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임양진 경영지원본부장은 “희망이 꽃

피는 공부방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 “광주 군공항 이전,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광주상의 호소문…국가 재정사업 전환 촉구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장기 표류하는 가운데 지역 경제계가 현황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의 역할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최근 호소문을 통해 “기부대양어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해법을 찾기 어렵다”며 군공항 이전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상의는 지방정부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기부대양어 방식이 이미 현실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사업비가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광주시 재정과 민간투자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 군공항 이전 사례를 통해 민간자본 의존 방식의 한계가 이미 드러났

다고 설명했다.

선투자·후회수 구조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데다 부동산 경기 변동, 환경 영향평가, 주민 갈등 등 복합적인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어 지방정부가 이를 감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과거 상무대 이전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례처럼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군·공항 시설 이전을 추진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광주상의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 방식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이전사업의 책임 주체를 국방부로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대책 마련과 종전 군공항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 에너지공대 정부출연금 내년 250억원으로 증액

개교 당시 수준 회복…연구·교육 역량 강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에 대한 정부의 2026년도 출연금이 당초 200억원에서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25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14일 나주시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따르면 2년 연속 200억원으로 축소됐던 출연금이 다시 250억원으로 상향되며 연구와 교육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증액은 개교 초기였던 2022년, 2023년과 동일한 수준을 다시 회복한 것으로, 정부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견인할 국가 전략기관으로서 에너지공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에너지공대는 확보된 예산을 활용에 에너지 신기술 분야 연구 인프라 확충, 국제 공동연구·산학협력 강화, AI·수소·전력 분야 우수 연구인력 유치, 학생 연구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된 나주의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핵심 축이다”며 “정부 출연금이 다시 250억원으로 회복된 것은 대학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지역 산업 전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



## 로또 1등 14명…당첨금 각 19억2000만원

제12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5, 12, 21, 33, 37,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7'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19억204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09명으로 각 4111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764명으로 119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8만21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72만3770명이다. 연합뉴스

## 작년 신혼부부 1118쌍 감소…소득 평균 못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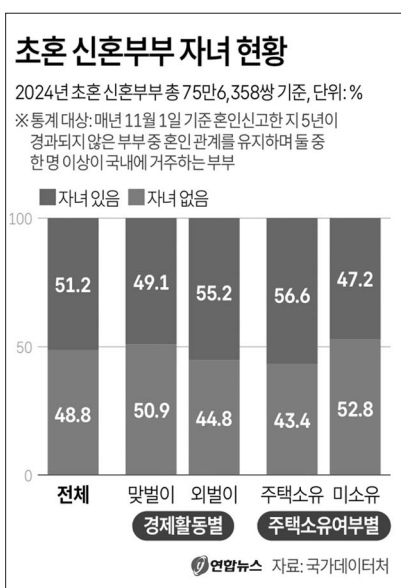
광주 6253만원·전남 6068만원…전국 7229만원  
맞벌이 60.3%·56.7%…10쌍 중 4쌍 '자녀 없다'

지난해 광주·전남 신혼부부 평균 소득은 전년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전국 평균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신혼부부 수가 줄면서 2년 연속 100만 쌍을 밑돈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도 1118쌍 감소했다.

1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신혼부부 통계 분석 결과, 광주와 전남의 평균 소득은 각각 6253만원, 6068만원으로 전년(6239만원·5696만원) 대비 각각 0.2%, 6.5% 늘었다. 다만 전국 평균(7229만원)보다 낮았다.

소득 구간을 보면 광주는 7000만~1억원 미만 22.5%로 가장 높았고, 3000만~5000만원 미만 20.1%, 5000만~7000만원 미만 19.8%, 1억원 이상 14.7%, 1000만~3000만원 미만 12.4%, 1000만원 미만 10.5%이었다. 전남은 7000만~1억원 미만 22.4%로 가장 높았고, 5000만~7000만원 미만 18.6%, 3000만~5000만원 미만 17%, 1억원 이상 15.8%, 1000만~3000만원 미만 14.3%, 1000만원 미만 11.9%이었다.

대출잔액을 보면 광주 신혼부부의 대출 중앙값은 1억5673만원, 전남은 1억2864만원으로 조사됐다.



광주 신혼부부 수는 전년(2만5954쌍)보다 3.7% (953쌍) 감소한 2만 5001쌍이다. 5개 자치구별로 보면 북구가 7887쌍으로 가장 많았고, 광산구(7714명), 서구(4153명), 남구(3029명), 동구(2219명) 순이었다.

전남 신혼부부 수는 3만208쌍으로 전년(3만445쌍)보다 0.5% (165쌍) 줄었다. 시군별로는 순천시가 52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시(4829명), 광양시(3573명), 목포시(3184명), 나주시(2537명), 무안군(2158명) 등의 순이다.

초혼 광주·전남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경우는 8539쌍(42.2%), 9228쌍(42.6%)으로,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광주 0.7명, 전남 0.72명이었다. 초혼 광주·전남 신혼부부의 첫째 자녀 출생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각각 16개월, 16.5개월로, 1년 미만이 각각 5260쌍(45.1%), 5353쌍(43.1%)으로 가장 많았다.

초혼 광주 신혼부부는 1만2192쌍(60.3%), 전남은 1만2262쌍(56.7%)이 맞벌이었다.

초혼 신혼부부 거주유형 별로는 광주 1만7992쌍(89%), 전남 1만7126쌍(79.2%)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었다.

초혼 신혼부부 중 광주 1만809쌍(53.5%), 전남 1만1763쌍(54.4%)은 주택을 소유 중이었다.

지난해 전국 신혼부부는 95만2026쌍으로 전년보다 2만2426쌍(2.3%) 줄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147만2000쌍에서 매년 3만~8만쌍 감소해 2023년(97만4452쌍)부터 100만 쌍 아래로 내려갔다.

지난해엔 감소율과 감소 폭이 모두 역대 가장 낮았다. 2020~2021년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2022년부터 재개되고, 혼인을 많이 하는 연령대인 30대의 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됐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에너지공대, 하나은행과 협약 캠퍼스 금융 인프라 확충 등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는 최근 하나은행과 금융 분야 협력 모델 구축과 캠퍼스 금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대학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주요 금융업무 수행한다. 양 기관은 자산관리·재정 운영 효율성 강화, 학생·교직원 대상 금융 서비스 고도화, 대학 발전기금 출연 통한 지속적 성과 창출, 향후 금융·교육 분야 협력 모델 발굴 등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출연해 대학의 성장 기반 조성에 동참한다. 또 자산 관리, 회계·출납, 금융서비스 등 핵심 금융업무를 전담하며, 향후 교내 영업점 운영 등 캠퍼스 기반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학생·교직원보다 편리한 금융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진호 총장직무대행은 “에너지공대와 하나은행이 협력해 안정적인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